



CHOI SUNGSIK

Portfolio - <https://sssungsik.github.io/>

Birth - 1997.02.01

Email - sungsik97@naver.com

Phone - 010-4991-4441

Certificate - 컴퓨터활용능력 1급 / OPIC IM / Gtelp Lv2

SKILLS

Frontend

- HTML
- CSS
- JavaScript
- jQuery
- Bootstrap

Backend

- Java
- Spring Boot

Database

- MySQL

GRADUATED

- 2016.03 ~ 2019.04 백석예술대학교 뮤지컬과 졸업
- 2013.03 ~ 2016.02 순창고등학교 인문계 졸업

PROJECTS

- 2024.07 ~ 2024.08 생일 축하해요
생일축하 글 익명등록 서비스
Details - <https://sssungsik.github.io/#portfolio>
- 2024.04 ~ 2024.07 약수터
약국 의약품 발주 및 재고관리 서비스
Details - <https://sssungsik.github.io/#portfolio>

EDUCATION

- 2024.02 ~ 2024.08 [디지털컨버전스]ICT융합 풀스택(java/spring) 개발자 양성과정
한국스마트정보교육원

ABOUT

선배님들이 필요로 하는 든든한 신입이 될 프론트엔드 개발자 최성식 입니다.

- 어떤 상황에도 예의예절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삶의 목표입니다.
- 제 이름 철자를 딴 '걸어다니는 인간 CSS'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 최신기술에 관심이 많고, 프로젝트에 적용해보며 내 것으로 만드려고 노력합니다.
-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끝까지 매달리는 끈기와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 무엇보다 코딩을 하는 것이 가장 재미있습니다.

시골에서 배운 예절

어릴 적 시골에서 자라면서 부모님으로부터 예의범절을 배우고, 어른을 공경하며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을 키우게 되었습니다. 철없던 시절, 집에서 저를 보살펴 주셨던 친할머니에게 버릇없이 행동했던 적이 많았습니다. 어느 날, 그 모습을 본 아버지께서는 사랑의 매와 함께 "너의 할머니도 나의 어머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저에게 깊은 반성과 후회를 안겨주었고, 이후 사람을 대할 때 누구나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어디서나 예의를 지키며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성인이 되어 자취를 시작하면서 하루 중 가장 먼저 하게 되는 말은 버스 기사님께 드리는 '안녕하세요' 한마디였습니다. 예의의 기본은 인사라고 생각하기에 항상 인사하는 습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힘들거나 기분이 좋지 않을 때에도 긍정적으로 웃으며 사람들을 대하려고 노력합니다.

부모님의 가르침 덕분에 예의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제 삶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코딩의 재미를 느끼다

저는 항상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을 즐기며, 그것을 제 것으로 만드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컴퓨터로 무언가를 만드는 것에 큰 재미를 느꼈습니다. 비주얼 베이직으로 메시지를 출력하는 간단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플래시 MX 2004로 SWF 파일을 만들어 플래시 커뮤니티 사이트에 업로드하며 사람들의 반응을 즐기곤 했습니다. 또한, 도서관에 있던 [나모 웹 에디터 따라하기] 책을 보며 웹 페이지를 만들고 즐겼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만들어지는 결과물을 보며 보람을 느끼는 과정에서 큰 재미를 느꼈습니다.

학업에 열중하면서 자연스럽게 컴퓨터와 멀어지게 되었으나, 성인이 되어 취업 준비를 위해 컴퓨터활용능력 자격증 공부를 시작하면서 다시 열정이 불타기 시작했습니다. Access의 데이터베이스 활용과 Excel에서 비주얼 베이직으로 매크로를 생성하는 과정에서 재미를 느꼈고, 스스로 이해도가 빠르다고 생각해 한 번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컴퓨터 공부를 즐기는 제 모습을 보며 새로운 것을 찾던 중, 어릴 적 해보고 싶었던 웹 페이지 개발을 공부해보고자 개발 언어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골에 있는 본가에서는 배울만한 곳이 마땅치 않았기에 처음에는 공공도서관의 책을 보며 공부하다가, 동영상 강의의 필요성을 느껴 유튜브에서 추천 받는 Udemy의 [100일 만에 완성하는 웹 개발자 강의]를 과감히 결제하여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이 행복했던 강의는 저에게 개발자의 꿈을 키워 주었습니다.

교육원에서 프론트엔드의 행복을 찾다

그러나 그 지식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어 더 폭넓은 기술을 배우고자 교육원에 등록했습니다. 좋은 교육원에 다니고자 인터넷을 검색하던 중, 국비학원순위 사이트에서 8위를 차지한 교육원을 보게 되었습니다. 수도권에 위치한 다른 순위권 교육원들과는 달리 유일하게 전라도에 위치해 있어 본가인 전라도에서 한 시간 반 거리지만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교육원의 과정을 거치게 되었습니다.

교육원에는 저보다 훨씬 잘하는 사람이 많았고 전공자들도 있었기에 저는 그 반에서 오히려 1등이 되고 싶었습니다. 선생님과 동료에게 끊임없이 질문하고 따라다녀 궁금한 것을 이해할 때 까지 질문하곤 했습니다. 또한 수업이 마친 후 집에서 유튜브와 블로그, 교재를 보며 복습하여 학습내용의 휘발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했습니다.

수업 중 저만의 독특한 학습법도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입력한 코드를 저는 선생님과 똑같이 입력하지 않고, 제가 임의적으로 변수명, CSS코드, 문법, 메서드 등을 다르게 입력하곤 했습니다. 선생님 화면 그대로 따라 입력하는 것은 저에게 효율적이지 않았고, 오히려 저만의 코드로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CSS 수업은 가장 행복했습니다. 늘 학원 선생님들과 동료들이 저를 보고 학원에서 프론트엔드는 제가 최고라고 하며 매우 뿌듯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학원에서 저의 영어 이름 철자를 딴 '걸어다니는 인간 CSS'라는 별명이 붙게 되었습니다. 동료들은 점점 프론트엔드에 관한 질문을 저에게 물어보러 왔으며, 저는 최선을 다해 동료들을 도와주었습니다. 동료들을 도와주는 것도 큰 보람과 재미가 있었고, 내가 많이 발전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곤 했습니다.

팀 프로젝트의 매력

아침에 눈을 뜨면 프로젝트 생각에 마음이 들떴고, 팀원들과 기능 구현 회의를 할 때면 시간이 어떻게 가는 줄 몰랐습니다. 주말에도 즐거움과 열정은 계속되어 프로젝트에 몰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래 다섯 명의 팀원으로 시작한 프로젝트는 중간에 두 명이 교육원을 그만두게 되어 세 명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프로젝트 분량이 많아지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팀원 간의 끈끈한 애정과 소통 덕분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남은 세 명의 인원끼리 유사한 페이지로 나누어 맡으며 협력하였고, 모두가 풀스택 개발자가 되어 프론트엔드와 백엔드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풀스택 기술들과 가까워져 익숙해 질 수 있었고, 나중에 혼자 프로젝트를 할 수 있겠다 라는 자신감이 들었습니다.

프로젝트는 상호 간의 원활한 소통과 애정이 프로젝트의 성공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팀 프로젝트의 방향성과 진행 과정에서 어려움 없이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은 팀원 간의 끈끈한 소통 덕분이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팀워크의 중요성을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아쉬웠던 점은, 프로젝트 초반 DB 설계 과정에서 테이블을 무리하게 나누고 잘못된 설계로 인해 개발 도중 DB를 수정해야 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DB 설계의 중요성을 깊이 깨달았으며, 향후에는 더 철저한 계획과 검토가 필요함을 느꼈습니다.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되기 위한 다짐

제가 정말 프론트엔드에 빠졌구나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교육원 수업이 끝난 후 거리를 걷다가 건물의 간판을 보며 들었던 생각이 '음. 보더 레디우스가 15 픽셀 정도 되겠군.' 이었습니다. 그만큼 프론트엔드가 재미있었고 행복했습니다.

교육원을 수료한 지금, Vue를 공부해보고자 동영상 강의를 결제하여 아침마다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Vue를 통해 1인 프로젝트 개발을 하는 것이 목표이며, 완료 후 React와 TypeScript를 공부하는 것이 또다른 목표입니다. 끊임없고 재미있는 공부를 통해 다재다능한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되고 싶습니다.

자기 전 프로젝트와 기술 블로그를 관리하는 습관을 가지고, 그날 작성한 코드를 다시 한번 보며 하루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다 보니 프로그래밍 언어와 더 친해질 수 있어 좋았습니다.

티스토리로 개설한 블로그는 직접 HTML과 CSS를 수정할 수 있어 저녁마다 블로그 글 업로드와 함께 HTML을 수정하여 블로그를 제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나아가 포트폴리오도 직접 코드로 작성해보고 싶어 페이지를 만들어 GIT PAGE로 배포하여 침대에 누울 때마다 배포한 URL을 스마트폰으로 접속해 수정할 부분을 찾아보곤 했습니다.

이러한 습관은 제 개발 역량을 향상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배움을 실천하며, 성장하는 개발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